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만나

출 16장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59장 (열어주소서)

오늘 배울



1.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의미를 압니다.
2. 우리가 일정한 음식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해야 함을 압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출 16:14~16)

말씀을 이해하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뒤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식량이 떨어진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밤에 이슬과 함께 광야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이 만나를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곧 스러졌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 육 일에만 안식일을 위해서 두 배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어 땃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거나 굽기도 해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비로소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을 위하여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곧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음으로 거친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공급받을 때 이 거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And Jesus said 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shall never thirst. (Jn 6:35)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만나의 모양, 색깔, 맛을 각각 찾아 적어봅시다(출 16:13~15, 31).

① 모양 :

② 색깔 :

③ 맛 :

②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얻었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출 16:17~27, 민 11:7~9). 세 가지를 써 봅시다.

①

②

③

③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보고, 예수님과 만나를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요 6:26~35, 48~51).

④

이번 주 생활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적어보고 교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잠 8:34

의

잠 16:20

화

시 17:4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수

요 6:50

목

요 6:51

금

엡 6:17

토

살전 2:13



잃어버린 식사

한 가난한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돈을 모아 배표를 사고 약간의 여비밖에 없던 그에게는 도저히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른 빵조각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는데, 닷새나 걸리는 항해기간 동안 그렇게 견딘다는 건 식욕이 왕성한 청년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더 이상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한 그는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조이면서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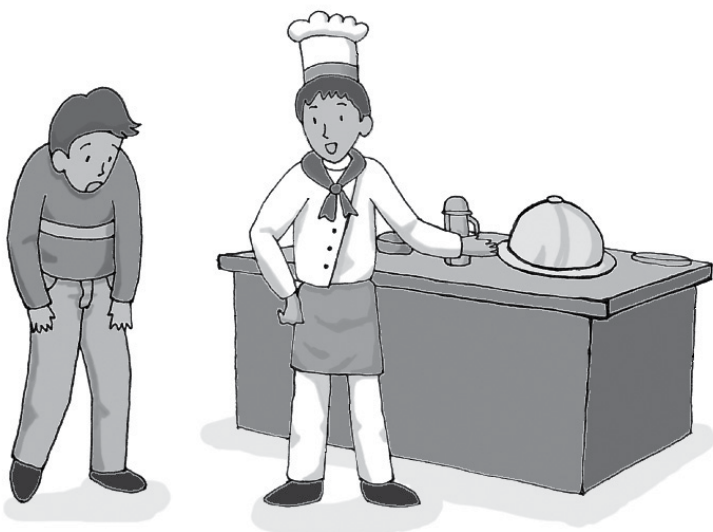
“미안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시장기를 참을 수 없어서...”

그러자 주인은 그 말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산 배표에는 이미 식사대금이 치루어져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늘의 만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질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시험을 당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전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욕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집에 뛰어 들어가 간신히 아들을 구해내고 어머니는 온몸에 흉한 화상을 입었다고 할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는 아들이라면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딤후 3:7~8)

단원 정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들어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40여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간 그 민족을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모세

모세는 40년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요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는 훗날 마귀의 종이 되어 신음하는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 유월절과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사건이며 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합니다.

●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 능력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는 애굽의 전차 부대, 앞에는 홍해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보이며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 모두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도와주십니다.

●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 밤에 이슬과 함께 지면에 작고 등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